

#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 금융취약계층 돕는다

전주시-전북은행-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은행 퇴직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주지역 노인들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로 활동한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금융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재무관리 △신용관리 △금융피해 예방법 △채무조정 상담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는 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와 협력해 채무조정, 법률구제 등 전문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면서 "전북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하는 오늘 협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실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전주에 본점을 둔 향토은행으로서 은퇴 직원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분야 전문 노인일자리 창출과 금융취약계층의 애로해소를 지원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북은행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는 참여자 직무교육 이수 후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에게

△금융관리교육(재무·신용관리 등) △경제자립 계획지도 △금융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사회

## '문화가 있는 날 그리스신화 배워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28일 김원익 작가 초청 강연 '그리스 신들의 3대에 걸친 전쟁 이야기' 주제

매일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그리스신화를 배울 수 있는 작가 초청 강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4층 다목적강당에서 (사)세계신화연구소장인 김원익 작가를 초청해 문화가 있는 날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번 강연은 '그리스 신들의 3대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주제로 일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원익 작가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문학박사이자 신화연구가로 다수의 인문학 강연에 초청되어 활발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또 △신화, 세상에 담하다 △신들의 전쟁 △그림이 있는 북유럽 신화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신화 수업 365 등 다수의 도서 저술했으며,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서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읽기 코너'를 진행한 바 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jb.jonju.go.kr)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063-230-1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들의 인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작고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강연을 마련해 도서관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행복한 미래 위한 담론의 장 전주서 열린다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온·오프라인 개최

국내·외 석학들과 사회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담론의 장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로컬푸드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행복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지역화와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로컬푸드 대표이자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전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대표가 '생태학적 범위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나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또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전환과 푸드플랜 △지역금융에서 본 디지털 전환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의 강연과 토론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가 대표로 있는 로컬푸드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올해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왔다.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주제

선정과 국내 기초연사 및 세션 인사 발굴 등에 힘써왔으며, 올해 국제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온라인 홍보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모집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의 장을 펼쳐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들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도 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지역에 활용 및 융합하기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국제회의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설공단, 효자묘지 추석연휴 하루 9500명 성묘

추석 연휴 기간 중 전북 전주효자공원묘지를 찾은 성묘객이 하루평균 95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총 3만18050여명의 성묘객이 전주효자공원묘지를 찾은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나흘간 하루 평균 7750여명이

효자공원묘지를 찾은 2019년 추석 연휴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여파로 2년 반 만에 효자공원묘지가 전면 개방하자, 그동안 성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귀성객과 시민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효자공원묘지의 성묘객 입장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효자공원묘지는 승화원을 비롯해 공설묘지, 봉안원, 봉안당, 효자자연장 등의 장사시설이 인접해 있다.

공단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사시설로 통하는 각 도로 주요 지점에 직원을 배치하는 등 연인원 58명을 동원해 특별 교통대책을 운영했다. /뉴시스

또 교통경찰관 30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경찰서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성묘를 하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족과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미련을 촉구했다.

## 전북 농민들 "쌀 가격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 결의대회 가져

전북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미련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쌀값은 27.5%나 폭락했고, 산지 하락은 몇 주 전부터 30% 이상 폭락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지난 1일 정부의 공비축쌀 45만 매입 발표에도 쌀값 하락세는 여전히 농촌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은 고사하

고 밥상물가를 핑계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당장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거래 의무화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유율 당관세(TRQ)물량 재협상 △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농업 생산비 보전 및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농연 관계자 18명이 삭발을 하며 쌀값 안정화에 대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뉴시스

